

벤처 활성화의 또 다른 출발, 벤처 M&A

M&A는 여전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생태계로 꼽힌다.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M&A 시장을 성장시키는 일은 결국 벤처인의 몫이다. M&A의 현주소와 필요성을 살펴봄으로써 벤처기업의 M&A전략을 조명한다.



Merger & Acquisition

인터넷 비즈니스의 성공모델 중 하나인 잡코리아의 매각이 최근 핫이슈로 떠올랐다. 지난 10월 미국 온라인 리크루팅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몬스터닷컴에 1천억원에 팔린 것이다. 전 세계 27개국을 통해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몬스터닷컴은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잡코리아를 선택했다. 일각에서는 잡코리아가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, 이번 잡코리아의 매각은 성공적인 M&A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.

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벤처기업의 M&A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. 기술력은 뛰어난 반면 규모가 작고 경영권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M&A를 잘 활용해 얼마든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국 내 M & A 의 현 주 소

일반적으로 M&A란, 독자적으로 새로운 사업영업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단기간에 진출하고자 할 때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·합병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일컫는다.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의 M&A에 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었지만, 최근 들어서는 벤처기업의 M&A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정부 역시 'M&A 활성화 대책'을 내놓는 등 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M&A시장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불협소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사실이다. 2004년 GDP 대비 M&A시장 규모의 경우, 한국은 2.08%에 그침으로써 미국(7.64%)이나 프랑스(6.98%)에 훨씬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. 절대금액으로 따져본다면 한국의 M&A시장 규모는 155억달러로, 미국의 8336억달러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.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'국가경쟁력강화 국제심포지엄'에서 중국기업의 M&A가 한국기업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분석이 나온 것은 한국 M&A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 하겠다.

기 업 성 장 과 경 쟁 력 강 화 방 안

벤처기업의 성장에 있어 M&A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. 첫째, 고수익·고위험의 특성을 가진 벤처기업은 그만큼 사업성 공률도 낮으므로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. 그런 면에서 M&A가 활성화되면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에 유리하다. 둘째,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금조달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M&A가 활성화되어야 한다. 이는 기존의 기형적인 M&A를 제어할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효과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및 성장전략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다. 셋째,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 기업이 모든 분야의 기술을 겸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 따라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M&A가 필요하다. 이러한 추세는 첨단산업으로 꼽히는 IT분야뿐 아니라 벤처산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.

이렇듯 기업의 성장전략인 동시에 생존전략의 하나인 M&A는 벤처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화를 이루어내는 데 첩경과도 같은 존재이다.

다 산 다 사 형 벤 처 흐 름 조 성

M&A가 성사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크게 영업효과와 재무효과를 거론할 만하다. 영업에 있어서는 마케팅·인사·생산 등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고, 시장거래 비용의 감소, 정보소통의 원활화 등이 주효과로 꼽힌다. 재무효과로는 잉여현금의 흐름이 원활해지고, 채무부담능력과 차입능력이 증가하며, 증권시장의 유동성이 증대된다.

그밖에도 M&A를 통해서 분산투자 효과를 노릴 수 있으므로 경영인 및 종업원, 대주주의 위험이 감소한다. 기술의 상호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면 또한 M&A의 효과라 하겠다. 또 경영권 관리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일 경우, M&A로 새로운 경영기술 능력을 취득하게 돼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. 절세 효과 역시 기업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. 합병기업 간 사업용 자산비율에 따라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이익에서 차감해 주므로 그만큼 세금감면이 가능하다.

벤처기업에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불러오는 M&A는 시장을 다양화할 수 있는 해결책의 하나로 주목받는다. 보다 적극적인 M&A 활용으로 벤처기업의 기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기술의 탄생이 가능해질 것이고, 결국 새로운 기술의 끊임없는 등장을 그려보는 시나리오 역시 가능하다. 이는 바로 선순환적 다산다사(多産多死)형 벤처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.

M & A 유형별 사례

경영자원 결합형 M&A - 화학용품 제조업체 호성케맥스는 주력사업인 화학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, 상처 치료 습윤드레싱제 '메디폼'을 생산하는 바이오폴을 인수했다.

시장 장악형 M&A - 신용카드 정보처리 분야 세계 1위의 퍼스트데이타는 국내 신용카드 뱅킹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KMPS를 인수해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했다.